



## Quartetto di Cremona 보도자료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이탈리아 실내악단 ‘Quartetto di Cremona’는 2018년 6월 29일 일신홀에서 한국 데뷔 무대를 갖게 된다.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협력하여 이번 공연을 기획한 일신문화재단은 현대음악의 보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uartetto di Cremona’는 국제 프로젝트인 "Friends of Stradivari"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도 Antonio Stradivari의 "Paganini Quartet"으로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 사용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모두 Nippon Music Foundation에서 ‘Quartetto di Cremona’에게 후원하였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정보:

Cristiano Gualco – Stradivarius 1727 Violin “Paganini”  
Paolo Andreoli – Stradivarius 1680 Violin “Paganini”  
Simone Gramaglia – Stradivarius 1731 Viola “Paganini”  
Giovanni Scaglione – Stradivarius 1736 Cello “Paganini”

공연은 1부/2부로 구성되며, 1부는 현대음악으로, 2부는 베토벤의 Quartet op.59/2을 연주할 계획이다.

상세 프로그램 아래와 같다.

<1부>

Anton Webern\_ Langsamersatz  
Silvia Colasanti\_ “Ogni cosa ad ogni cosa ha detto addio”  
Fabio Vacchi\_ Movimento di Quartetto

<2부>

Beethoven\_ Quartet op.59/2 in e minor

6월 29일 날 열리는 ‘Quartetto di Cremona’ 티켓은 이미 두 달 전에 매진을 기록하면서 한국 내에서 공연팀과 세계 삼대 명기로 꼽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